

# 도계, 하장지역통화권역조기조정촉구및 도계분국전화국승격건의안

의 안 번 호	256
------------	-----

발의년월일 : 1996. 2. 2.

발 의 자 : 전세영의원외 6인

## 1. 주 문

우리 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 이상 3개지역은,  
상고시대부터 삼척시와 동일 행정구역이면서도  
유독 통화권역만은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으며,

또한 태백전화국 도계분국의 경우  
폐광지역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발여건,  
농공단지내 공장입주 등,  
전화가입자의 폭발적 증가 예상에 따른 사전 전화수요 대비와  
양질의 전화 서비스차원에서,

도계, 하장지역의 삼척전화국으로의 통화권역 조기 조정촉구 및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 필연성이 제기되어  
등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통화권역 조정에 있어서  
한국통신 관계자께서도 주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간, 주민간 이질감 해소차원에서  
종전에 태백시 관할로 되어있던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등 모든 공공·유관기관이  
삼척시 관할로 일원화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유독 귀 사의 전화 통화권역만은 태백시 관할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누차에 걸쳐서, 행정기관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삼척시 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을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만이 지금까지 다수시민의 여론을 묵살한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시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통신행정의 크나큰 오류라고 속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도,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행정기관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의회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책임을 질타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수시민의 여론악화와 주민불편 가중으로 인하여,  
원성이참예하게 확산될시, 한국통신에 돌아가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것을 냉철히 직시함과 아울러

도계분국의 기존시설로써도

통화권역 조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  
조기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역을 조정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은 태백전화국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 문제입니다.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있는 도계 · 신기 · 하장지역 전화가입자,  
8,000세대로써, 삼척시 전체가입자 33,000세대중 25%에 해당되며,

강원도 고성전화국 관할의 경우,  
전화 가입자가 9,000세대로써,  
도계분국과 통신시설면이나 가입자수가 유사한대도 불구하고,  
향후 전화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화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지역 도계분국의 경우도,  
폐광지역특별법시행에 따른 육백산개발, 골프장시설,  
신기면 환선굴 개발, 조성 완료된 도계 농공단지내 공장입주,  
쌍용자원개발(주) 채광공장 건립, 흥성산업(주) 사원아파트  
입주등이 완료될시,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향후 폭발적인 전화가입자 증가로  
도계분국 체제로는 효율적인 통신서비스체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화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행시설 부족이나 분국체제로써의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통신시설확충이나 전화국 승격등 사후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향후 예측가능한 전화수요에 대비하는 통신정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설투자없이도 기존 도계분국의 통신시설이나  
장비등으로도, 전화국 승격시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삼척전화국 관할로의 통화권역 조정, 도계분국의 전화국 승격문제는  
우리 10만 삼척시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가장큰 지역 현안 문제로써,  
조기에 조치하여 줄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2. 제안이유

종전에 태백관할로 있던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등  
공공·유관기관들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삼척시 관할로 일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행정구역임에도  
유독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통화권역만이  
현재까지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통화권역을  
삼척시전화국 관할로 조기에 일원화 시켜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폭발적인 전화가입자 증가추세가 예상되는  
태백전화국 도계분국에 대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 공급차원에서 전화국 승격을 건의하기 위함.